

# 보성군, “행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가축 폭염 대응 선제 강화

## 공무원과 축산농가 간 1:1 담당제 운영... 고온 스트레스까지 잡는다!

역대급 무더위가 전국을 강타하는 가운데, 보성군은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축산업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성군은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공무원-축산농가 간 1:1 담당제를 운영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 7월 7일부터 전 읍면 축산농가에 공무원을 매칭한 ‘폭염 대응 전담제’를 본격 가동해, 매일 가축 관리 요령 문자 발송, 마을 방송을 통한 행동 요령 안내, 읍면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폭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선제적 기반 시설 투자 ... ‘축사에 바람이 돈다!’

우선, 축사 내 고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축사 환풍기 설치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9억 7,200만 원을 투입해 가금류 등 전 축종

1,732대의 환풍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미 전면 가동 중이다. 이는 지속된 선제 투자로, 폭염의 직격탄을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폭염이 본격화되기 전인 상반기부터 가축재해보험 가입도 적극 지원했다. 군은 총 55농가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농가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 고온 스트레스 대응까지 ‘가축 건강도 정책이다!’

이번 폭염 대응에서 보성군은 한발 더 나아가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은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 사료 섭취량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및 사료효율 개선제를 총 350농가에 2억 1,700만 원 규모로 지원했다.

폭염 장기화가 예고되면서 군은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추가 공급을 추진 중이며,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농가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보성낙우회 이평래 회장은 “올해처럼 고온이 지속되면 가축 피해가 속출할 수 있는데, 군에서 먼저 환풍기, 완화제 등을 지원해 줘서 큰 피해 없이 여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축사는 곧 생계 현

장이자 가축의 생명줄인 만큼, 적정 사육두수 유지와 시원한 음수 제공, 전기 시설 점검 등 평소의 세심한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이 먼저 움직이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축산농가의 맘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성축산업을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 꽃망울 터진 순백 연꽃 감상하러 회산백련지로 오세요! 개화하는 백련, 다채로운 꽃으로 여름 대표명소로 자리매김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회산백련지에 순백의 백련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며 한여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28회 무안연꽃축제’의 열기를 이어, 10만여 평 규모의 연밭에는 고귀한 자태를 뽐내는 백련이 장관을 이루며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회산백련지의 백련은 도입종인 ‘인취사백련’과 자생종인 ‘무안백련’으로 구분되며, 이 중 조생종인 인취사백련은 현재 만개한 상태다. 무안백련도 개화를 시작한 이달 말경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백련 외에도 수련, 가시연꽃 등 30여 종의 연꽃과 함께 피튜니아, 산파첸스, 백일홍 등 다채로운 여름꽃이 어우러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축제 기간 큰 호응을 얻은 태권V, 아이언맨 등 20여 종의 진주 유등 캐릭터는 7월 말까지 전시되며, LED 장미와 경관 조명과 함께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하고, 동물농장, 어린이 놀이터, 바닥분수 등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이 풍성하게 마련돼 가족 여행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백련지를 내려다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수상 유리온실 안 ‘백련카페’는 SNS에서 ‘인생샷 명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황토맨발길은 건강과 힐링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생태 체험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영미 관광과장은 “백련은 새벽녘에 활짝 피기 때문에 출몰다리, 생태탐방로, 관측데크 등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추천한다”고 전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회산백련지는 오감만족형 복합 관광지로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며, “답노소 누구나 여름을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대표 관광 명소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제공

광양시가 평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폭염에 대응해 도시공원 내 수경시설을 본격 가동했다.

시는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광양읍 우산공원 바닥분수, 중마동 마동생태호수공원 실개천, 중마오류광장 콜링포그, 총 3곳에서 수경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하절기 가동되는 도시공원 내 수경시설은 무더위에 지친 시민과 어린이를

### 광양시, “침범침범” 도시공원 내 수경시설 운영

우산공원, 마동생태호수공원, 중마오류광장서 물놀이터 운영

위한 물놀이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올해도 콤포트리놀이터, 숲체험원 등과 연계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더 다채롭고 시원한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운영기간 동안 매주 1회, 총 8회에 걸쳐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진행하고, 사전 수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현숙 광양시 공원과장은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민들께서는 가까운 공원과 광장을 찾아 더위를 이겨

내며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산공원과 마동생태호수공원은 각각 광양읍과 중마동권을 대표하는 시민쉼터로, 최근 광양시는 우산공원에 대형그늘막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놀이터 내 안전난간도 보강하는 등 도심 속 휴과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의 시설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이른 불볕더위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축산농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관내 650여 축산농가에 폭염 대비 축사 관리 요령을 수시로 문자 안내하고 있으며, 양돈·오리·닭 등 취약 축종 농가 45곳에는 1: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폭염 대응 방법과 사육 시 주의 사항을 농가별 상황에 맞춰 안내하고 있다.

### 담양군, 가축 폭염 피해 대응 ‘총력’

농가 대상 관리요령 안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지원 ▲축사 열차단제 도포 ▲낙농가 환풍기 설치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시설 지원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큰 규모의 가축 폐사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으며, 긴급 예비비 6천만 원을 편성해 고

온스트레스 완화제를 취약 축종 농가에 우선 공급, 오는 18일까지 신속하게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폭염은 사람뿐 아니라 말 못 하는 가축에게도 큰 고통”이라며 “앞으로도 행동 요령 홍보는 물론, 현장 중심의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영암군, 틈새이음·돌봄동행 사업 수행기관 선정

긴급·일상 돌봄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돌봄 체계 강화한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1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틈새이음 영암 돌봄사업’ ‘군민 누구나 돌봄동행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두 사업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영암군민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영암형 통합 돌봄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들.

틈새이음 영암 돌봄사업은 기존 돌봄 서비스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암군민에게 단기 가사 지원, 식사 제공, 응급 돌봄 등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돌봄 사각지대의 긴급 수요에 신속한 복지 서비스로 촘촘한 지역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민 누구나 돌봄동행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동행이 필요한 영암군민에게 병원·약국 방문, 행정민원 처리, 생필품 구매 등 생활 밀착형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암/김희선 기자

곡성군 새마을회는 7월 14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137명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수 안전 지식과 행동 요령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노인 일자리 활동 중 안전 수칙에 관한 동영상 시청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어서 ▲곡성군 보건의료원의 감염병 예방 교육(감염병, 진드기 매개 질환, 결핵

### 곡성군새마을회,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종합 안전교육

혹서기 감염병 예방 및 폭염 대응 요령

예방)과 ▲곡성 소방서의 응급상황 대응 및 재난안전교육이 이어졌다.

특히, 곡성 소방서는 여름철 폭염 대응 요령, 생활 속 화재·낙상 등 사고 예방법, 응급상황 시 대처 방법 실제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곡성군 관계자는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이어 나가겠다”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은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참여자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곡성/이정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